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가?

<농담>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었다. 루드빅은 자신을 감옥에 갇히게 한 제마넥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나 제마넥은 그 일을 망각해버렸고 루드빅에게 스스럼 없이 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루드빅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부분을 읽고 나는 제마넥의 망각이 과연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봤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사례를 가져와 봤다. 기념일을 망각해서 헤어지는 연인, 괴롭힘을 행사하고도 망각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하는 것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위에서 제시한 예시 중 학창시절의 괴롭힘에 대해 ‘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석해 보겠다. 한 연예인은 학창시절 본인에게 따돌림을 가했던 친구가 그 일을 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SNS를 통해 연락을 보내왔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따돌림을 주도했던 그 친구는 그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연락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따돌림을 당한 사람은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따돌림을 주도한 사람이 망각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농담>의 상황을 다시 해석해보자면 제마넥이 망각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물론 루드빅은 따돌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은 것이지만 그 처벌이 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농담>을 저술한 밀란 쿤데라가 원하는 해석일 것이다. 왜냐하면 루드빅은 밀란 쿤데라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설정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밀란 쿤데라도 실제로 공산당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 후에 <농담>을 저술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쩌면 누구는 이 상황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관계없으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망각’은 <농담>에서만 나타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도 충분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망각’이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기에도 너무 바쁜 일상 속에 있지만 이런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더 나아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을 망각하기 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